

# 중년층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홍용기\*, 임왕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 Effects of the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Middle-aged Workers on Retirement Preparation

Ryung Kee Hong\*, Wang-Kyu Lim\*\*

Dept. of Elderly Welfare, Gradual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hD\*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l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는 중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중년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283부의 자료를 모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설계는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신경을 쓰는 노후준비지표로 파악되었다. 둘째, 재무설계는 삶의 질과 크게 관계가 없는 은퇴준비의 지표로 파악되었으며, 그 외 모든 지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은 은퇴준비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년, 직장인, 직무만족, 삶의 질, 은퇴준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with retirement preparation of middle-aged workers. Data from 283 subjec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ople with higher quality of life tend to care more on health planning. Second, financial planning has nothing to do with quality of life, whereas self-respect has a positive effect on all the other indicators for retirement preparations except financial planning. Third, retirement preparations has not been affected by work satisfacti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Middle-aged, Workers, Work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Retirement Preparation

Received 27 September 2014, Revised 30 October 2014

Accepted 20 Nov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Wang-Kyu Lim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l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Email: wklim@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취업이 늦어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면서 이른바 '트리플 30'(30+30+30)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즉, 태어나 30년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30세부터 60세까지는 활발한 경제적 활동을 한 뒤 나머지 30년은 은퇴 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30년의 중요한 경제활동 시기에 별 준비 없이 보내다가 무방비로 은퇴를 하고 노후를 맞닥뜨리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1]. 삼성생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은퇴준비를 지수로 환산할 경우 100점 중 56.7점으로 '주의' 단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2], NH은퇴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30대부터 50대까지의 절반 이상이 자녀 양육 때문에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3].

상황이 이러하지만 실제 경제활동시기의 직장인들은 은퇴 후의 삶의 준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번아웃(burnout)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연료가 다 타버린 듯 일에 찌들어 탈진하는 현상으로, 매경이코노미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의 86%는 이러한 번아웃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2013)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 24시간 중 노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26%로 하루 4분의 1 이상을 일하며 살며, 주당 근로 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직장인들이 은퇴준비에 시간과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사치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활발한 경제활동시기에 은퇴 후 삶을 대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노후의 안정뿐만 아니라, 노후대비를 실패한 노인에 대한 과도한 복지비용 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가는 데 반해 은퇴연령은 점점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은퇴이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조기에 계획을 갖고 교육을 받으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세대를 따라 은퇴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현재 30·40·50대는 국내 노동력의 근간을 차지하며 활발한 경제활동시기에 있지만 한편으로 장시간의 근무와 높은 업무강도로 말미암아 신체적·정신적으로 매

우 힘든 시기이기에, 이러한 국내 중년층 직장인들의 현재 상황들이 다른 향후 노후준비에 좋은 나쁘던 이전 베이비부머세대와는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현재 경제활동시기에 있는 직장인들의 적절한 은퇴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퇴직 후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소 있는 편이나[5,6,7], 중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은퇴를 대비하는데 있어 현재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와 함께 삶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 관념에 따라 그들의 은퇴준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으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그들의 삶의 질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성을 갖게 되는 직장인 은퇴준비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여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정책과제에 이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은퇴준비

은퇴란 개인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그만두면서, 수입은 이전 직업으로 받게 된 퇴직연금에 의존해 있는 상태로써[8],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는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은퇴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9].

은퇴에 관련된 이론으로 Atchley[10]은 지속이론을 통해 은퇴 이후의 인생이 과거의 모든 삶과 연결된 인생주기 전체의 통합시기임을 나타내며[11], Maslow[12]는 중년층의 은퇴준비는 욕구단계인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욕구가 모두 달성되거나 어느 정도 충족되어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은퇴준비를 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11]. 또한 Laslett[13]의 '제 3기 인생'에 대한 이론에서 경제활동 시기인 제2기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다보면 보다 퇴직 후 제 3기를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여기서 제 3기는 중년층 나이인 대략 30세에서 59세에까지 이르는 시기로 경제적·신체적·정신사회적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후생활을 준비

하게 된다. 또한 Havighurst[14]의 사회적 활동이론은 노화에 따라 점차 비활동적이고 역할이 감소하여도 대안 활동을 통해 역할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유용하다고 하는 이론으로서, 노후생활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수행 및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은퇴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전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준비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15,16,17], 근래에 들어 활동이론에 입각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여가에 대한 준비 또한 노후준비로 보고 있으며[18], 노후를 보다 안락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중년기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신체·사회적 준비, 그리고 여가생활까지도 포함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19]. 2013년 5월 입법 발의된 (가칭)노후설계지원법[20]에서도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관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며, 재무와 비재무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노후 설계 서비스를 강조하였다[21].

이러한 다원적인 노후설계와 더불어 노후준비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 생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은퇴준비를 은퇴자에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변화시켜 나가며 은퇴라는 변화를 미리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22]. 최영호·전성남[23]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대한 준비로 노후생애설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지금 중년층이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노인과 비교했을 때 경제력과 교육수준이 현저히 높고, 환경적으로도 저출산 현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노인부양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노인문제는 노인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중년층에게 보다 앞선 질 높은 노후준비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4].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은퇴준비 유형을 토대로 은퇴준비의 지표로서 재무설계(경제적), 건강설계(신체적), 여가설계(여가준비), 대인관계설계(사회적)로 용어정리를 하고, 이와 더불어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

주는 노후교육(생애설계)을 은퇴준비에 포함하여, 이러한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2 은퇴준비와 직무만족의 관계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와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에서 얻은 긍정적인 상태를 말한다[25]. 직무만족에 대한 이론으로 비교이론, 수단이론, 사회적 영향이론, 공정성이론 등을 들 수 있으며[26], 이중 비교이론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서 자기성찰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개인이 원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라는 비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7]. 이러한 직무만족은 개인차원에서 가치판단 그리고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28].

이러한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은퇴와의 관계에서 현재 일하는 업무에 만족하여 은퇴하기를 원하지 않는 측면[29]과 다른 생활에도 높은 적응성을 보여 은퇴를 원한다[30]는 상반된 연구가 존재하였는데, 이후 이러한 직무만족이 은퇴에 대한 준비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신계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업만족도가 은퇴준비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준비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반면[6], 최명화·최수일[31]은 직무만족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여영희[32]는 교원을 대상으로 직업만족도가 퇴직준비프로그램의 참여욕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지만, 서훈[5]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현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이후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중년층 직장인의 직무만족은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은퇴준비와 삶의 질의 관계

삶의 질은 주관적인 가치판단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나타낸다[33].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삶의 질을 정의하면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이라고 표현하였는데[34], 이는 개인적 자율성, 육체적, 정신적 안녕, 삶의 만족도, 경제적 상태, 문화적 요소, 사회적 관계, 환경 등의 요소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특히 Cambell[35]는 물질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삶의 질에서 주관적·정신적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삶의 질은 이제 학계에서만 다뤄지던 전문용어가 아니라 일반 대중사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Maslow[12]의 욕구위계이론에서도 상위단계인 존경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를 고려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36], 최근 들어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개개인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3자적 입장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더욱 강조되면서[22],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주관적 삶의 질의 측정도구로서 생활만족도[37], 심리적 안녕감[38], 자아존중감[39] 등이 연구되어진바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의 주관적 요인들이 향후 은퇴에 대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다양한 대상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 먼저 생활만족도는 일상의 활동으로부터 의미와 기쁨,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와 현재 삶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앞으로의 전반적인 삶의 전망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40], 이러한 생활만족도와 은퇴준비의 연관성에 대하여 배정민[41]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만족도가 노후준비도를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주예심[42]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퇴직 태도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적 태도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서 중년여성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노후대책이 정(+)의 상관관계로, 그 하위변인 중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고[43,44], 배문조[17]은 20-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경제적인 은퇴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임희규[45]는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요

한 변인으로서 노후교육 프로그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 심리적안녕감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 또는 전체적인 감정으로서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개념을 의미하며[46], 강성옥·하규수[47]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심리사회적 안녕은 노후준비도 중 경제적 준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체적, 정서적 준비에 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수록, 은퇴 및 노후를 준비하는데 보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중년층 직장인의 삶의 질은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생활만족도는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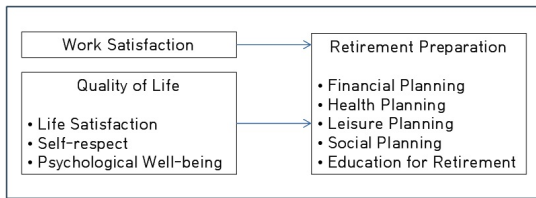
H2-2 자아존중감은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심리적안녕감은 은퇴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직업만족도와 함께 삶의 질의 지표로서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을 하위변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중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의 은퇴준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은퇴준비의 세부요인으로는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하였듯이,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설계와 함께 노후교육을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3.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중년층 직장인의 은퇴준비를 연구하고자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에 종사하는 30-59세를 대상으로 직무태도와 삶의 질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30일간(2014. 5. 1 ~ 2014. 5. 30)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305부였으며, 이중 결측 값이 있는 22부를 제외한 283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제 규칙이 있는 직각회전방법인 배리맥스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파악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여가활동 및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셋째,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 3.3 변수의 측정도구

#### 3.3.1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황택순[48], 류성봉[49], 윤여경[50]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

였으며, “나는 직장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일할 생각이다 -JS1”, “나에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JS2”, “나는 현재 직무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 JS3”, “나의 현 직무는 장래성이 있으며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JS4”의 총 4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3.2 삶의 질

생활만족도는 이상매[51], 임점주[5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다 -LS1”,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 한다 - LS2”, “지금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보람 있다 - LS3”, “현재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삶에 가깝다 - LS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 LS5”의 총 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이형만[33], 한아영[53], 김용길[5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SE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SE2”,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 SE3”,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 SE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 SE5”의 총 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심리적안녕감은 양미화[55]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많지 않다 - PW1”,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 PW2”,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만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 PW3”,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 PW4”, 총 4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3.3 은퇴준비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설계는 최혜련[56], 신미숙[57], 김남순[58], 신계수[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재무설계는 “노후를 위해 절약하며 생활한다 -FP1”, “노후의 안정을 위해 매사에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기른다 - FP2”, “은퇴를 대비해 재테크 또는 자산관리에 관

(Table 1) Factor Analysis

Item	Factor									
	1	2	3	4	5	6	7	8	9	h2
LS-1	.825	.154	.057	.210	.185	-.138	.110	-.015	.107	0.828
LS-2	.776	-.020	-.028	.080	.177	-.121	.257	.110	.093	0.742
LS-3	.759	.087	.030	.201	.362	-.099	.059	.042	.133	0.788
LS-4	.745	.079	.138	.186	.327	-.057	.100	-.039	.127	0.752
LS-5	.705	.133	.006	.285	.114	-.211	.139	.058	.075	0.681
ER-1	.064	.857	.083	.067	-.057	-.039	.103	.114	.080	0.784
ER-2	.032	.784	.155	.090	.085	-.170	.138	.133	.123	0.736
ER-3	-.036	.752	.104	.008	.001	.046	.100	.039	.091	0.599
ER-4	.141	.657	.071	.122	.250	-.148	.085	.160	.101	0.599
ER-5	.139	.635	.185	.026	.027	-.171	-.013	.368	-.008	0.623
SP-1	.142	.634	.170	.059	.188	.016	.154	.065	.131	0.536
SP-2	.007	.110	.864	.132	.039	-.011	.099	.107	.074	0.804
SP-3	.012	.096	.836	.051	.124	-.023	.114	.106	.047	0.754
SP-4	.083	.166	.829	.101	-.057	-.043	.117	.055	.026	0.754
SP-5	.017	.076	.816	.056	.017	.005	.055	.041	.032	0.681
SP-6	.091	.222	.712	.102	.053	-.084	.061	.214	.127	0.651
SR-1	.205	.056	.037	.798	.051	-.100	.128	.053	.097	0.725
SR-2	.391	.075	.149	.696	.126	-.191	.095	.134	.105	0.755
SR-3	.310	.250	.156	.683	.214	-.064	.137	.028	.021	0.719
SR-4	.073	-.002	.187	.635	.292	.000	.031	.152	.042	0.555
SR-5	.527	.085	.108	.560	.097	-.053	.241	.058	.076	0.69
PW-1	.167	.181	.059	.101	.807	.010	-.045	-.013	.041	0.729
PW-2	.317	.079	.059	.121	.693	-.161	.079	.093	.120	0.661
PW-3	.161	.100	-.003	.163	.682	.011	.118	-.023	.174	0.572
PW-4	.348	-.020	.042	.168	.679	-.054	.039	.106	-.087	0.836
WS-1	-.099	-.157	-.018	-.103	-.063	.847	-.091	-.091	-.044	0.785
WS-2	-.088	-.068	-.074	-.104	-.037	.833	-.081	-.107	-.049	0.744
WS-3	-.095	-.087	-.025	-.055	.100	.787	-.010	-.008	.057	0.653
WS-4	-.233	.046	.004	.013	-.258	.582	-.171	.026	-.155	0.516
HP-1	.070	.147	.053	.271	.026	.006	.796	.067	.184	0.755
HP-2	.089	.095	.141	.003	.072	-.196	.734	.193	.046	0.658
HP-3	.230	.167	.161	.181	.126	-.199	.719	.052	.042	0.716
HP-4	.270	.162	.139	.026	-.013	.001	.662	.012	.119	0.572
LP-1	.019	.202	.147	.097	.049	-.101	.047	.869	.058	0.847
LP-2	.010	.261	.127	.131	.040	-.013	.058	.822	.063	0.786
LP-3	.091	.140	.196	.070	.031	-.066	.213	.752	.177	0.718
FP-1	.100	.123	.058	.073	.003	-.060	.077	.067	.867	0.799
FP-2	.202	.172	.119	.051	.086	.009	.139	.047	.846	0.833
FP-3	.095	.146	.094	.108	.172	-.086	.126	.165	.725	0.657
Eigen Value	4.127	3.757	3.720	2.850	2.811	2.739	2.615	2.454	2.340	
% of Variance	10.583	9.634	9.539	7.308	7.207	7.022	6.705	6.292	5.999	
Cumulative %	10.583	20.217	29.756	37.064	44.270	51.292	57.997	64.289	70.288	

KMO Measure = 0.884

Bartlett  $\chi^2 = 6334.826$ ,  $df = 378$ ,  $p = 0.000$

\* $p < .05$ , \*\* $p < .01$ , \*\*\* $p < .001$

\* LS: Life Satisfaction \* ER: Education for Retirement \* SP: Social Planning \* SR: Self-Respect \* PW: Psychological Well-being

\* WS: Work Satisfaction \* HP: Health Planning \* LP: Leisure Planning \* FP: Financial Planning

심을 갖고 있다 - FP3”의 3문항, 건강설계는 “충분한 수면을 갖는다 - HP1”, “피곤하면 휴식을 취한다 - HP2”,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한다. - HP3”,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 HP4”의 4문항, 여가설계는 “일을 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기 좋다 - LP1”,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 여가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 - LP2”, “여가활동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 LP3”의 3문항, 대인관계설계는 “사회적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 SP1”, “사회적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의 조언과 격려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 SP2”, “개인적인 외로움과 따분함이 사회적 모임을 통하여 감소한다 - SP3”, “사회적 모임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 SP4”, “공동체 삶에 대한 의식이 높다 - SP5”, “노후에는 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친한 친구들과 앞으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다 - SP6”의 6문항, 총 16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노후교육은 최성희[22], 홍석태[24]가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퇴직 후 자기개발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 ER1”, “퇴직 후 삶을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능력개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싶다 - ER2”, “퇴직 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기관을 알아볼 계획이다 - ER3”, “퇴직 후 평생시 배우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싶다 - ER4”, “나는 노년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배울 것이다 - ER5”, 총 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4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 검정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 검정을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모두 KMO 값이 0.8이상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남으로써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선정된 변수들로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요인분석의 결과 묶여진 7가지 요인을 <Table 1>에 나타내었고, 이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 3.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항목분석 방법 중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계수가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Sub-Variable	Cronbach's $\alpha$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804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911
	Self-respect	.856
	Psychological Well-being	.803
Retirement Preparation	Financial Planning	.835
	Health Planning	.809
	Leisure Planning	.859
	Social Planning	.867
	Education for Retirement	.898

### 3.6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직업, 월소득, 종교유무, 건강상태, 자녀동거 유무, 부모부양여부, 생활수준, 순자산 규모, 은퇴연령, 주거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3>와 같이 남성이 171명(60.4%), 여성이 112명(39.6%)이었고, 연령은 30세~39세가 127명(44.9%), 40세~49세가 155명(54.8%), 50세~59세가 51명(18.0%)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lassification		N(%)	Classification		N(%)
Gender	M	171(60.4)	Level of Life	Poor	33(11.3)
	F	112(39.6)		Normal	229(80.9)
Age	30-39	127(44.9)	Net Asset	Wealthy	21(7.4)
	40-49	105(37.1)		Minus	27(9.5)
	50-59	51(18.0)		< ₩100M	54(19.1)
Education	High School	19(6.7)	₩100-300M	103(36.4)	
	College	22(7.8)	₩300-500M	46(16.3)	
	University	116(41)	>₩500M	53(18.7)	
	Graduate	126(44.5)	< ₩3M	83(29.3)	
Occupation	Office Worker	148(52.3)	Salary/Month	₩3-5M	121(42.8)
	Officials	72(25.4)		₩5-7M	50(17.7)
	Professionals	63(22.3)		>₩7M	29(10.3)
Religion	Y	157(55.5)	House	Owner	180(63.6)
	N	126(44.5)		Rent	103(36.4)
Children	Together	164(58)	Spouse	Marital	213(75.3)
	Separate	19(6.7)		Single	70(24.7)
	No Kids	100(35.3)	Parents	Support	60(21.2)
Health	Very Bad	0(0)		No Support	223(78.8)
	Bad	20(7.1)	Age for Retirement	<55	72(25.4)
	Normal	154(54.4)		50-60	131(46.3)
	Good	90(31.8)		61-65	60(21.2)
	Very Good	19(8.7)		>5	20(7.1)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재무설계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재무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안녕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재무설계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Model I은 <Table 3>와 같이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이들 변수 중 주거형태, 연령, 생활수준, 건강상태, 은퇴연령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sup>2</sup>은 25.1%였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 $\beta=.180, t=3.146, p<.01$ )이 재무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재무설계에 대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27.7%로 Model I보다 2.6%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재무설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Financial Planning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beta$	t	B	$\beta$	t	B	$\beta$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158	-.097	-1.757	-.130	-.080	-1.462	-.110	-.068	-1.250
	Housing2)	-.217	-.129	-2.125*	-.219	-.131	-2.177*	-.230	-.137	-2.293*
	Children3)									
	Children 1	-.325	-.101	-1.778	-.344	-.107	-1.912	-.382	-.119	-2.128*
	Children 2	-.016	-.010	-.145	-.032	-.019	-.295	-.036	-.021	-.335
	Age	.025	.251	3.329**	.021	.206	2.736**	.022	.217	2.879**
	Education	-.029	-.031	-.527	-.036	-.038	-.649	-.035	-.037	-.633
	Salary/Mon	-.020	-.023	-.341	-.028	-.033	-.489	-.049	-.056	-.845
	Net Asset	.007	.011	.170	.008	.013	.200	.013	.020	.313
	Level of Life	.414	.223	3.518**	.396	.214	3.422**	.348	.188	2.993**
Health	.228	.202	3.518**	.206	.183	3.222**	.144	.127	2.122*	
Age for Retirement	-.146	-.156	-2.711**	-.175	-.187	-3.257**	-.171	-.182	-3.191**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189	.180	3.146**	.085	.081	1.181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105	.114	1.406
	Self-respect							.092	.073	1.042
	Psychological WB							-.062	-.057	-1.009
F		8.248***			8.633**			7.530***		
R2		.251			.277			.297		
$\Delta R2$					.026			.020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삶의 질과 재무설계 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는 못하였고, 아울러 직무만족 변수도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삶의 질이 도입되면서 직무만족의 설명력이 Module II보다 Module III에서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Model III의 재무설계 요인에 대한 전체설명력이 29.7%로 가장 높음을 고려할 때, 직무만족과 삶의 질은 은퇴준비 요인 중 재무설계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2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건강설계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건강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안녕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건강설계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Model I은 <Table 3>의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이들 변수 중 생활수준,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sup>2</sup>은 21.4%였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 $\beta=.150, t=2.546, p<.05$ )이 재무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건강설계에 대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23.2%로 Model I보다 1.8%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건강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삶의 질의 모든 요인, 즉 생활만족도( $\beta=.166, t=2.089, p<.05$ ), 자아존중감( $\beta=.209, t=3.031, p<.01$ ), 심리적안녕감( $\beta=.121, t=-2.163, p<.05$ )과 건강설계 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직무만족 변수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삶의 질이 도입되면서 직무만족의 설명력이 Module II보다 Module III에서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Model III의 건강설계 요인에 대한 전체설명력이 31.7%로 가장 높음을 고려할 때, 삶의 질이 은퇴준비 요인 중 건강설계 활동에 영향을 미

<Table 5>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Health Planning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beta$	t	B	$\beta$	t	B	$\beta$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122	-.071	-1.251	-.098	-.056	-1.003	-.055	-.032	-.598
	Housing2)	-.044	-.024	-.391	-.045	-.025	-.409	-.079	-.044	-.745
	Children3)									
	Children 1	.020	.006	.102	.003	.001	.018	-.067	-.020	-.357
	Children 2	.139	.077	1.146	.124	.069	1.037	.112	.062	.986
	Age	.020	.188	2.441	.016	.151	1.946	.018	.168	2.256*
	Education	.029	.029	.481	.024	.024	.393	.016	.016	.269
	Salary/Mon	-.023	-.025	-.364	-.030	-.033	-.483	-.071	-.077	-1.177
	Net Asset	-.015	-.021	-.313	-.014	-.019	-.294	-.004	-.006	-.089
	Level of Life	.289	.146	2.251*	.273	.139	2.151*	.169	.086	1.384
	Health	.421	.351	5.960***	.402	.335	5.716***	.271	.226	3.814***
Age for Retirement	-.060	-.060	-1.026	-.086	-.086	-1.460	-.073	-.073	-1.300	
Work Satisfaction				.168	.150	2.546*	-.050	-.045	-.662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163	.166	2.089*	
	Self-respect						.282	.209	3.031**	
	Psychological WB						-.140	-.121	-2.163*	
F		6.691***			6.798***			8.261***		
R2		.214			.232			.317		
$\Delta R2$					.018			.085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 (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편안한 사람일수록 건강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 4.3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여가설계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여가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안녕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가설계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Model I은 <Table 3>의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이들 변수 중 생활수준과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의 전체설명력 R<sup>2</sup>은 8.6%였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 $\beta=.178, t=2.802, p<.01$ )이 재무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여가설

계에 대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23.2%로 Model I보다 1.8%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여가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삶의 질의 요인 중 자아존중감( $\beta=.294, t=3.869, p<.001$ )만이 여가설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직무만족 변수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삶의 질이 도입되면서 직무만족의 설명력이 Module II보다 Module III에서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Model III의 여가설계 요인에 대한 전체설명력이 29.7%로 가장 높음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이 은퇴준비 요인 중 여가설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큰 사람일수록 노후 여가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 4.4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대인관계설계에 미치는 영향

중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대인관계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

<Table 6>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Leisure Planning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beta$	t	B	$\beta$	t	B	$\beta$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081	-.055	-.908	-.056	-.038	-.635	-.038	-.026	-.439
	Housing2)	-.104	-.069	-1.023	-.105	-.070	-1.052	-.147	-.097	-1.495
	Children3)									
	Children 1	-.186	-.064	-1.024	-.203	-.070	-1.130	-.203	-.070	-1.157
	Children 2	.167	.110	1.517	.153	.100	1.403	.141	.092	1.329
	Age	.005	.059	.704	.001	.015	.176	.001	.008	.092
	Education	-.019	-.023	-.346	-.025	-.029	-.451	-.055	-.065	-1.014
	Salary/Mon	-.023	-.030	-.397	-.030	-.039	-.529	-.036	-.047	-.644
	Net Asset	.009	.015	.214	.010	.017	.240	.013	.022	.326
	Level of Life	.275	.165	2.350*	.259	.155	2.244*	.215	.129	1.888
Health	.156	.154	2.422*	.137	.135	2.141*	.095	.094	1.441	
Age for Retirement	-.085	-.100	-1.581	-.111	-.131	-2.061*	-.094	-.111	-1.792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168	.178	2.802**	.103	.109	1.466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117	-.141	-1.602
	Self-respect							.335	.294	3.869***
	Psychological WB							-.099	-.101	-1.636
F		2.319*			2.834**			3.645***		
R2		.086			.112			.170		
$\Delta R2$					.026			.058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Table 7)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Social Planning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beta$	t	B	$\beta$	t	B	$\beta$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227	-.169	-2.882*	-.199	-.148	-2.566*	-.186	-.139	-2.418*
	Housing2)	.040	.029	.448	.038	.028	.437	.011	.008	.122
	Children3)									
	Children 1	-.038	-.014	-.236	-.057	-.022	-.365	-.068	-.025	-.432
	Children 2	.202	.144	2.076*	.186	.133	1.948	.182	.130	1.932
	Age	.013	.152	1.900	.008	.098	1.225	.009	.105	1.313
	Education	-.053	-.069	-1.095	-.060	-.077	-1.251	-.073	-.094	-1.523
	Salary/Mon	.078	.110	1.532	.070	.098	1.399	.062	.087	1.240
	Net Asset	-.015	-.026	-.387	-.013	-.024	-.364	-.010	-.019	-.284
	Level of Life	.235	.153	2.273*	.217	.142	2.148*	.180	.118	1.783
	Health	.191	.206	3.363**	.170	.182	3.031**	.133	.142	2.250*
Age for Retirement	-.076	-.098	-1.602	-.106	-.136	-2.245*	-.095	-.123	-2.039*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193	.221	3.661***	.138	.159	2.203*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034	-.045	-.531
	Self-respect							.160	.153	2.069*
	Psychological WB							-.100	-.112	-1.864
F		4.436***			5.369***			4.984***		
R2		.153			.193			.219		
$\Delta R2$					.040			.026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정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대인관계설계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Model I은 <Table 3>의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이들 변수 중 종교, 자녀동거, 생활수준,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sup>2</sup>은 15.3%였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 $\beta=.221$ ,  $t=3.661$ ,  $p<.001$ )이 대인관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대인관계설계에 대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23.2%로 Model I보다 7.9%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대인관계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삶의 질의 요인 중 자아존중감( $\beta=.153$ ,  $t=2.069$ ,  $p<.05$ )이 대인관계설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설계에 대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31.7%로 Model

II보다 8.5%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과 함께 직무만족도 ( $\beta=.159$ ,  $t=2.203$ ,  $p<.05$ )도 대인관계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직무에 만족하고 자아존중감이 큰 사람일수록 노후의 대인관계를 보다 중요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 4.5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노후교육에 미치는 영향<sup>1)</sup>

중년층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노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과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안정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노후교육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와 같다.

Model I은 <Table 3>의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이들 변수 중 순자산규모와 생활수준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sup>2</sup>은 9.5%

1) 분산팽창계수(VIF)가 1.122에서 2.477 사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Table 8) Effect of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n Education for Retirement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beta$	t	B	$\beta$	t	B	$\beta$	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igion1)	-.046	-.027	-.450	-.027	-.016	-.267	-.005	-.003	-.051
	Housing2)	.136	.078	1.158	.134	.077	1.153	.099	.057	.871
	Children3)									
	Children 1	.214	.064	1.018	.201	.060	.960	.201	.060	.985
	Children 2	-.087	-.049	-.686	-.098	-.056	-.775	-.119	-.067	-.963
	Age	-.001	-.008	-.096	-.004	-.037	-.437	-.006	-.056	-.681
	Education	.064	.066	1.010	.060	.061	.947	.025	.026	.400
	Salary/Mon	-.072	-.080	-1.071	-.077	-.086	-1.158	-.085	-.094	-1.293
	Net Asset	.110	.157	2.228*	.110	.159	2.253*	.113	.163	2.378*
	Level of Life	.316	.163	2.341*	.304	.157	2.262*	.260	.135	1.969
Health	.080	.068	1.074	.065	.056	.878	.020	.017	.265	
Age for Retirement	.001	.001	.011	-.019	-.020	-.306	-.003	-.003	-.054	
Work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128	.116	1.832	.046	.042	.560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114	-.118	-1.346
	Self-respect Psychological WB							.426	.323	4.233***
F		2.596**			2.680**			3.518***		
R2		.095			.106			.165		
$\Delta R2$					.011			.059		

\*p<.05, \*\*p<.01, \*\*\*p<.001

1) Religion(Yes=0, No=1), 2) Housing(Owner=0, Rent=1), 3) Children(Together=0), Children1(Separate=1), Children2(No=1)

였다.

Model II에서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통제하고 직무만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직무만족은 노후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노후교육에 대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10.6%로 Model I보다 1.1%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요인이 노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Model III에서는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삶의 질의 요인 중 자아존중감( $\beta=.323, t=4.233, p<.001$ )만이 여가설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노인교육에 대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16.5%로 Model II보다 5.9%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이 은퇴준비 요인 중 노후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큰 사람일수록 퇴직대비 교육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 5. 결과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년층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이 은퇴준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특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 가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층 직장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건강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삶의 질의 모든 요인이 건강설계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재 삶이 평안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보다 불시에 찾아와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질병 등을 미연에 막아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 노후의 신체적인 준비를 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둘째, 중년층 직장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여가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삶의 질의 요인 중 자아존중감만이 여가설계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며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정신을 갖는 사람일수록 노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여가설계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중년층 직장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대인관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직업만족과 더불어 삶의 질

의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설계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재의 만족스러운 직업에서 쌓은 사회적 관계들을 노후에도 유지하고자하는 영향으로 판단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노후의 사회활동에 대한 준비를 중요시하기에 대인관계설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년층 직장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노후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삶의 질의 요인 중 자아존중감만이 노후교육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노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남과 다른 노후 활동을 할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노후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중년층 직장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두 요인이 재무설계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직무에 만족하고 주관적인 삶의 질이 우수한 것과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활동은 크게 연관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은퇴 후의 노후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고, 특히 향후 몇 십년 내에 은퇴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중년 직장인들의 현재 직무와 삶의 질에 따라 은퇴준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각종 정부나 은퇴준비 단체에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여 은퇴준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여 향후 전국의 직장인 설문문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직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후속연구로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위하여 직종별, 소득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준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립변수 중 삶의 질에 경우 주관적인 요인에만 포커스를 하였는데, 삶의 질의 객관적 요인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은퇴준비의 영향요인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MunHwa: <http://www.news.Kukinews.com>
- [2] Herald Economy: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27000402&md=20131130004317\\_BK](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27000402&md=20131130004317_BK)
- [3] Yonhap: <http://www.yonhapnews.co.kr>
- [4] MK: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328490>
- [5] Hoon Suh, A study of middle-aged men's job career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pouses for successful aged life planning -focused on baby-boom generation-.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12.
- [6] Gye-Soo Shin,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occupation and activity nature of the middle-aged on retirement preparation.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12.
- [7] M. J. Bae · K. Y. Jeon, The effect of variables on attitudes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2, No. 7, pp.89-102, 2004.
- [8] R. C. Atchley, Retirement as social institu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8, pp.263-287, 1982.
- [9] T. H. Kim · D. B. Kim · A. S. Kim · M. H. Kim · Y. J.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18, No. 1, pp.150-169, 1998.
- [10] R. C. Atchley,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Vol. 29, No. 2, pp.183-190, 1989.
- [11] Jae-Young Joo,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of baby-boomers on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MA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1.
- [12]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1970.
- [13] P. A. Laslett, A Fresh Map of Lf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89.
- [14] R. J. Havighurst · R. Albrecht, Older People. NY: Longmans Green, 1953.

- [15] Kye-Hee Bae, A study on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of middle-aged. MA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1989.
- [16] Mal-Sun Seong,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provision and measures for old age : centering on Ulsan. MA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04.
- [17] Moon-Jo Bae, The effect of individual, psychological and job-related variables on retirement expectations and preparations. Ph.D. dissertation, KyungBuk University. 1985.
- [18] Min-Hee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MA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2009.
- [19] G. Godbey, Leisure in life. CBS Collegepublishing, 1981.
- [20]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bill for support of old age preparation system. 2013.
- [21] E. J. Ji, Later life planning service in Korea - Focusing on a universal, balanced perspectiv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9, No. 4, pp.249-283, 2013.
- [22] Sung-Hee Choi,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soldiers scheduled to retire. Ph.D. dissertation, SeoNam University. 2012.
- [23] Y. H. Choi · S. N. Jeon, Life design education, the aging of the baby boomers Stud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8, No. 6, pp.150-169, 2013.
- [24] Suk-Tae Hong, The effects of the elder's life on making provision for elderly education of pre-old adults in Korea.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08.
- [25] E. A. Locke, Personal Attitudes and Motiv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26, pp.457-480, 1976.
- [26] Yong-Kil Kim, A study on the physical, social, and leisure-welfare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Ph.D.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3.
- [27] S. K. Kim, Human Behavior in Organizations. Seoul: Myungkyungsa, 2008.
- [28] Y. K. Shin, Human Organizational Behavior. Seoul: KNOU Publisher, 2008.
- [29] K. M. Kilty · J. H. Behling,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professional workers. The Gerontologist, Vol. 26, No. 5, pp.525-530, 1985.
- [30] S. Gee · J. Baillie, Happily ever after? An exploration of retirement expect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Vol. 25, No. 2, pp.109-128, 1999.
- [31] M. W. Choi · S. I. Choi, Relations among personal,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eparation for the old age-focused on the workers in the Banwol-Siwaha industrial complex.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6, pp.249-264, 2012.
- [32] Young-He Yeor,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desire to participate on the education program for retirement preparation by teachers. Ph.D.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2014.
- [33] Hyoung-Man Lee, A study on the impact of volunteer activities of elders upon the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Kyungwon University. 2012.
- [34]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mental\\_health/media/68.pdf](http://www.who.int/mental_health/media/68.pdf)
- [35] A. Cambell, Subjective measurement of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31, No. 2, pp.117-124, 1997.
- [36] Heung-Kwon Choi, A study on the effect of mental health on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Ph.D.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2010.
- [37] Woo-Jin Jung, The effect of reciprocal providing family support and non-family support on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MA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2014.
- [38] Ho Jin, A study on TV reporter's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ubjective well-being.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2009.
- [39] Mi-Sun Kim, A study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quality in the elderly. MA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4.
- [40] B. L. Neugarten · R. J. Havighurst, S. S. Trobin,

- Happily ever after?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No. 2, pp.134-143, 1961.
- [41] Jung-Min Bae, The relationship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ife satisfaction and preparation of life in old age. MA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2014.
- [42] Ye-Sim Ju, A study on old preparation conscious of middle-aged and retirement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2014.
- [43] Jung-Kwang Jung,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Retirement Plans b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Middle-aged Women. Ph.D.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2009.
- [44] Myung-Jun Park,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 Social factors of Middle-aged Women's on Preparatory Measure for old age.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13.
- [45] H. G. L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between middle-aged and old-aged people. *Korea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3, pp.85-99, 2012.
- [46]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6, pp.1069-1081, 1989.
- [47] S. O. Kang · K. S. Ha, Relations between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their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2, pp.121-144, 2013.
- [48] Taek-Soon Hwang, The effects of supervisor support and personal disposition on the work-family conflict and job attitude : An explorative study for pursuing work-life balance. Ph.D.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2008.
- [49] Sung-Bong Ryu,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for social welfare workers. Ph.D. dissertation, Jeonnam University. 2013.
- [50] Yeo-Kyung Yo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based on workers' leisure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3.
- [51] Sang-Mae Lee, The Effects of Lifestyle of the Older Women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13.
- [52] Jum-Joo Im,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f Behaviors of leisure and self-control in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2010.
- [53] A-Young Han, Effect of Argentine Tango on the physical balance capacity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2011.
- [54] Yong-Gil Kim, A study on the physical, social, and leisure-welfare factors i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 Ph.D.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3.
- [55] Mi-Hwa Yang,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le retirees. Ph.D.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2.
- [56] Hae-Leon Choi, Influence of the middle aged adults' life style and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on the preparation of life in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2.
- [57] Mi-Sook Sin, According to the lifestyles of older adults information navigation attitude and preparation of aging. Ph.D.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2014.
- [58] Nam-Soon Kim, Studies in the middle-aged workers' recognition of their retirement plans -Relation between personal, socioeconomic factors, and the government policy-. Ph.D. dissertation, Gacheon Haany University. 2009.

**홍 융 기(Hong, Ryung Kee)**



- 199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 199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이학석사)
- 2009년 5월 : 뉴욕주립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시니어산업, 시니어헬스케어, 시니어교육  
· E-Mail : rkhong@naver.com

**임 왕 규(Lim, Wang-Kyu)**



- 200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적기업, 고령친화산업, 기술경영, 경영공학
- E-Mail : wklim@hoseo.edu